

I. 서론

사진이란 용어가 1839년 처음 사용된 이후, 불과 18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Jean-Luc Daval, 박주석(역), 1999, 9에서 재인용).¹⁾ 디지털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경량화, 고화질, 저비용 등의 특징은 그러한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스마트폰의 등장은 카메라의 전 지구적 확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스톡앱스(StockApps)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세계 휴대폰 사용자들의 수는 거의 53억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67%에 해당한다. 후스윗(Hootsuit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새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약 1억 1,700만 명으로 이 기간 전체 이용자 수는 2.3% 증가했다. 또한 전체 휴대전화를 연결한 수를 고려할 때 수치는 훨씬 더 높다.²⁾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5%로 조사대상 27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5%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 인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³⁾

사진의 속성이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빛'을 가까이 하고 있다. 사진과 삶의 불가분성, 선교적 도구로서 갖는 사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진 신학은 산발적 논의가 조금 이루어져 있을 뿐이고, 신학 분야에서 사진 신학은 논의가 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사진 분야에서 신학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이 용어는 1839년 2월 독일의 천문학자 폰 메들러(J. H. von Mädler)가 헬리오그래피(heliography), 다케르식 은판사진(daguerreotype), 포토제닉 드로잉(photogenic drawing) 등으로 명명된 실험적 방법들을 기록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등장했다. 이 말은 영국의 존 허셀(John Herschel) 경에 의해 채택되었고, 프랑스의 과학자 프랑수아 아라고(François Arago)가 1839년 7월 3일 파리에서 프랑스 하원에 다케르식 은판사진 공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는 용어는 생겨나고 일반화되었다.

2) Korea IT Times(2021. 9. 3),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53억명 돌파...세계 인구의 67%, <https://www.koreaitimes.com>

3) 조선일보 한국 스마트폰 보유율 '95%'... 세계 1위, 2019. 6. 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6/2019020600746.html

사진 매체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주신 지혜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든 사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상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사진의 신학적 토대 구축을 위해 탐색적 논의를 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사진학과 신학의 지평 융합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사진학과 신학의 융합 지점을 영성 사진(Contemplative photograph)에서 찾고자 하였다. 형이상학적인 두 학문의 융합이 영성 사진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의 신학적 근거와 영성 사진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 두 학문 체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보다 체계적인 논의 전개를 위해 영성 사진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여 각각 신학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 연구 문제 1 : 사진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연구 문제 2 : 영성 사진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연구 문제 2-1 : 영성 사진 형식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연구 문제 2-2 : 영성 사진 내용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연구 문제 3 : 영성 사진의 실천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연구 문제 1은 사진의 헬라이어 어원을 검토하고 빛의 신학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연구 문제 2는 영성 사진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여 각각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기로 한다. 연구 문제 2-1의 영성 사진 형식은 문화 신학에서, 연구 문제 2-2의 영성 사진의 내용은 자연 신학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 문제 3의 영성 사진의 실천에 대해서는 영성 사진을 교육하고 있는 국내외 사진 교육 현장 사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학문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사진학과 신학을 융합해서 접근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사진학과 신학의 통섭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신학의 본질은 새로운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학은 더 이상 특정한 종교적 연구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학문들과의 대화에 더욱 개방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신학적 방법론으로도 간학문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김은혜, 2005, 157~158). 신학에 비해 학문적 역사가 일천한 사진학의 입장에서 볼 때, 신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사진학의 지평 확대와 함께 사진학의 발전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둘째로, 실제적 차원에서 사진이 성도들의 신앙을 고양시키는데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영성 사진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성 사진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영성 사진 교육 현장 소개를 통해, 영성 사진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성경의 지평과, 신학 이론의 지평 그리고 사진가 삶의 지평을 융합함으로써 영성 사진의 이론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 기존 문헌 고찰

2.1 영성 사진의 개념

2.1.1 영성의 개념

영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콘템플레이션(contemplation)이란 서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대에 와서는 잊혀버린 개념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를 번역하는 통일된 단어는 없다. 때에 따라 묵상, 심사숙고, 명상, 응시, 관조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최근에는 관상이란 번역도 쓰인다. 번역에는 통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일치된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영성, 관조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관조의 신학적이고도 신앙적인 의미를 현대인들의 기억 속에 되살린 사람은 토머스 머튼(Thomas Merton)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발전한 관조의 전통은 기독교에서 수도원 전통으로 계승되어 유지되었다. 머튼은 기도와 명상이라는 수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온 수도원의 관조 전통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실천이 가능한 현대적인 영성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그에게 신비적인 것은 일상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영적인 삶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야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콘템플레이션(contemplation)이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지만, 그리스의 원어는 테오리아(theoria)였다. ‘이론’이라 번역되는 단어 테오리(theory)가 거기에서 나왔다. 테오리아의 의미는 ‘본다’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하늘과 신을 바라보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고, 세상을 알고 지식을 얻는 행위의 근본이 신적인 본질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데 있다는 뜻이었다. 테오리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영혼의 눈으로 신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였다. 테오리아는 세상을 이해관계가 아니라 경이로운 것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행위였다. 자신의 이익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가 가야만 세상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행위였다.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영적인 훈련이 필요했다. 침묵과 묵상과 절제를 요구하는 훈련의 필요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움이었다. 이런 관조의 이해는 근대의 사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진리를 관조하고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는 영적인 훈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로 대체된 것이다(서보명, 2021, 148~149).

2.1.2 영성 사진의 개념

포토그래피(photography)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 ‘빛’이라는 의미의 포스(phos)와 ‘그리다’라는 그라포스(graphos)의 합성어로 ‘빛으로 그리다’, 즉 광화(光畵)라는 뜻이다. 그러나 포토그래피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대로를 베껴(찍어, 박아)내다’라는 뜻의 ‘사진(寫眞)’으로 전해졌고 그 결과 ‘실물과 닮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류경선, 2007, 24).

이 용어는 1839년 2월 독일의 천문학자 폰 매들러(J. H. von Mädler)가 헬리오그래피(heliography), 다게르식 은판사진(daguerreotype), 포토제닉 드로잉(photogenic drawing) 등으로 명명된 실험적 방법들을 기록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등장했다. 이 용어는 영국의 존 허셸(John Herschel) 경에 의해 채택되었고, 프랑스의 과학자 프랑수아 아라고(François Arago)가 1839년 7월 3일 파리에서 프랑스 하원에 다게르식 은판사진 공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는 용어는 생겨나고 일반화되었다(Jean-Luc Daval, 박주석(역), 1999, 9)

그리고 ‘카메라(camera, 사진기)’라는 말은 이미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생도구로 이용되어왔던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는 라틴어로 ‘어두운 방’이라는 뜻인데, 카메라 옵스큐라가 ‘어두운 상자’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카메라 옵스큐라에는 선명한 상을 맺게 해주는 렌즈가 부착되고 빛의 양을 조절할수 있는 셔터와 조리개가 덧붙여져 오늘날 사용하는 카메라의 기본 구성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사물을 그대로 베끼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진(寫眞)’의 개념은 포토그래피의 예술적 특징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사진의 예술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던 이유도 바로 너무 카메라 기술적 차원에서 단순히 베끼는 의미만 강조된 점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광화(光畵)라는 개념이 보다 그리스 원어적 개념에 가까우며, 사진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예술적 의미를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성 사진이란 대상을 관조하면서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빛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영성 사진이란 대상을 단순히 찍는 ‘take picture’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본론에서 살펴보겠지만, 영성 사진이란 대상을 관조하면서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여 스토리를 표현하는 ‘make picture’ 수준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적 특징이 있다.

2.2 국내외에서 사진 신학에 대한 기존 논의

국내외에서 사진 신학이라는 분야는 비교적 생소하다. 사진에 대한 신학적 접근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니와, 신학계에서 사진에 대한 논의 역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사진과 신학에 대한 에세이 수준의 단상들은 있지만 전문 서적이거나 논문은 많지 않다.

미국에서 영성 사진에 대한 단행본이 출간된 바 있다. 하워드 제르(Howard Zehr, 2005)는 신학 서적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명상(meditation) 서적도 아니지만 제2장에서 영성 사진(contemplative)에 대한 태도를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진이 성찰과 명상의 도구, 즉 기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하워드 제르는 요즘 인식을 위해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인식 방법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반성하고 명상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시각적인 인식과 상상력을 높이고, 수용성과 보다 총체적인 인식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피조물과 창조주에 대해 새로운 것을 얻는 동시에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성격 유형에 따라 관조적인 접근 방법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저자도 저자의 경우 관조에 들어감에 있어 시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신의 영적 훈련 스승의 경우에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하라는 과제를 수행토록 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 결과 사진은 자신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훌륭한 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직관적이고 심미적인 감성을 개발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해 사진 매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사진을 구상하고 촬영함에 있어 ‘재 이미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사진신학과 관련하여 최병학의 『사진-신학』이라는 단행본이 유일하다(최병학, 2020). 최병학은 사진과 신학의 만남을 의미하는 Photheology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데, 언어의 기원적 근거가 약해 보인다. 이 책은 체계적인 분석의 틀도 가지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신학 이론적 배경도 담고 있지 않다.

최병학은 사진이 어떻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받고, 신앙적 생명을 얻고,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진의 신학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백승균(2014)의 『사진 철학을 만나다』에서 단서를 찾고 있다. 백승균의 “사진과 사람의 관계, 나아가 인간 의식과 사진의 관계에 관해 ‘사실의 사진’, ‘의미의 사진’, ‘의식의 사진’으로 분류”를 인용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최병학, Ibid, 18~25).

최병학은 사실의 사진은 사실의 신학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단순한 교리를 주입하는 신앙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의 사진은 의미의 사진으로 넘어가고, 사실의 신학은 의미의 신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사진과 신학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김어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연장노출(extended exposures)과 다중노출(multiple layering)을 소개하면서, 김어타가 노자 ‘도덕경’ 5290자, ‘논어’ 1만 5817자, ‘반야심경’ 260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촬영해 각각 한 장으로 포개는 작업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최병학은 성경은 분량이 많으니 ‘요한복음’

이나 ‘창세기’만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서 촬영하기를 추천하고 있다.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고, 없애버림으로써 있음을 드러내는 구도자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그는 예수께서도 깨달은 바, 천하만국의 영광이 결국 사라짐을 깨닫는 것과 똑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최병학, Ibid, 22~23).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성경의 문자와 이미지와의 관계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문스럽다.

최병학은 사진 신학의 기독론에서는 다양한 빛의 종류로 설명한다. “빛이 직사광과 산란광으로 나누듯 구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예언을 직사광으로 비춰주고 있으며(특히 이사야 말씀), 신약 성서는 그 예수의 사랑을 산란광으로 온 세상에 비춰준다. 특히 빛(예수)의 산란과 역할을 잘 수행한 이는 사도 바울이다. 그의 선교 여행은 예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자, 빛의 확장이다. 빛의 순광은 예수의 예루살렘 행이며, 측광은 예수의 섬세한 이웃 돌봄이며 사랑은 예수의 사랑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역사광은 예수의 말씀 선포의 매력이며 탐 라이트는 예수의 인성의 비유이며 역광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알레고리를 표현한다. 또한 빛의 직진은 예수의 의롭고 순결한 삶이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력을 꺾으셔서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다음 어둠 속에 갇혀있던 모든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부패들을 청소하신다.”(최병학, Ibid, 180). 이러한 설명에는 논리적 비약이 나타나며, 주장하는 내용도 빛의 광학적 특성이나, 성경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이상식(2022)은 행복한 부자학회에서 ‘사진을 통한 행복한 선교’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은 빛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빛으로 시작되고 빛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최초 행위가 빛의 창조와 함께 빛과 어둠을 가르는 일이었다.⁴⁾ 요한계시록에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에 도성을 비치기 위해 창조된 빛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스러운 광휘가 충분한 빛 그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⁵⁾

“사진은 시간과 공간의 빛으로 빛이라는 물감을 찍어 물과 바람이 그린 그림”이라는 함철훈작가의 사진 개념을 인용하면서, 이상식은 사진과 신학은 빛의 신학에서 만난다고 보았다(이상식, 2022, Ibid). 그러면서, 구약에서 빛의 의미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현존을 신비적으로 암시하며, 신학에서 빛의 의미는 “빛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요8:12)에서 찾고 있다. 빛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빛의 형이상학자인 보나벤투라(Sanctus Bonaventura)를 소개하고 있다.

“건전한 성경적 영성은 공동체 영성으로서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관계는 하나님, 이웃과 세상,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인데, 오늘날 자연과의 관계가 상실된 것 같다”라는 영성 신학자(오우성, 박민수, 2022)의 주장에 근거하여, 일반계시에 근거한 영성 사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4) 창세기 1장 3~5절

5) 요한계시록 21장 23~25절

성경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⁶⁾ “피조물이 지니고 있는 가장 하찮은 속성으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관상해 간다면 피조물이 지닌 가장 고상한 속성으로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할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지닌 거룩하고 가장 고상한 속성을 맛보게 된다.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려고 꿈틀거리는 벌레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수 있다. 자연을 아름답게 수놓는 갖가지 수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수 있다”는 것이다(유해룡, 2009, 97).

이상식은 사진 선교가 행복한 이유를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자이며,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빛 예술은 영성을 회복시켜주고, 삶을 승화시켜준다. 사진이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감성, 이성, 영성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는 영상 세대로 다른 세대이기에, 전도가 아니라 선교로 접근해야 하며 메타버스 시대에 사진에 비전을 담아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에 행복할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상식, 2022).

그 외 사진 신학과 관련된 연구로 박종석(2016)은 사진이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신앙의 순례이기도 한 인간 삶에서 사진이 기독교신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박종석은 생애주기와 사진의 관계, 그리고 그 함의를 다루고, 이어서 그 같은 내용들이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신자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모색하였다.

III. 사진의 신학적 근거

3.1 영성 사진과 빛의 형이상학

영성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기에, 빛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빛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광학 차원(우주론, 천체론, 물리학)과 인식론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진의 빛 그림의 특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하는 것이기에, 이 글에서는 인식론적 형이상학에 한정하기로 한다.

빛은 빛의 근원(lux)과 빛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빛(lume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빛은 그것이 빛의 근원에서 흘러나온다는 점에서 우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생성된 후에 그것은 실제로서 존재한다. 또한 모든 존재자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 자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빛이 진리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폐되어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리(aletheia)의 본래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박경숙, 2003, 88).

6) 로마서 1장 20절

빛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차별적 입장을 보인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그 뿌리로 하고 있고 헤브라이즘은 성경, 즉 유대-그리스도교를 그 토대로 삼고 있다. 한편, 헬레니즘에서는 그리스어로 빛은 빛나다(phostēr)라는 동사에서 나온 포스(phos, φῶς) 혹은 포토스(photos, φῶτος)이다. 이 어근에서 오늘날 사진(photography)이란 말이 빛과 관련되어 빛의 그래픽을 의미함을 사진 개념을 설명한 제2장에서 살펴보았다.

근동 세계에서 최초로 언급되는 빛은 낮의 빛이었지만, 태양, 빛, 구원 및 생명 등이 연관된다. 그리스어에서 빛(phos)처럼 히브리어에서는 빛을 오르('or, אֹר)라고 일컫는데 여기서 '비추다', '빛나게 하다'라는 동사와 '태양과 별빛',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특징이 되는 빛' 등의 명사가 유래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빛은 보아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며, 수식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었고, 전이된 의미로 빛과 어둠의 영역일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을 전제로 하며, 이 활동은 구원과 멸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 지향적이다(원유동, 2008, Ibid, 68)

헤브라이즘의 기초는 성경인데,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빛으로 시작되고 빛으로 끝난다. 즉 창세기에는 창조주의 최초 행위가 빛과 어둠을 가르는 일이었으며,⁷⁾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 말하고 있다.⁸⁾ 그러나 성경 전체 속에는 빛의 두 가지 상징의 지칭이 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빛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인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즉 피조물로서의 창조된 자연적 빛을 말한다. 원시의 혼돈 가운데 나타나는 낮의 빛이나 낮과 밤 동안 지상을 비추는 천체의 빛은 모두 창조물이다.

구약에서 빛의 상징은 하나님의 현현이나 현존을 신비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빛의 상징은 신약에서 보다 넓게 사용된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빛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과 야보고서에 빛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빛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나는 참된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빛의 아버지" 등의 표현으로 대부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 (원유동, 2008, Ibid., 70~72)

서구 사상에서 빛의 형이상학은 보나벤투라(Sanctus Bonaventura)에서 절정에 이른다. 보나벤투라는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빛의 아버지(Pater luminis)'라는 칭호를 즐겨 사용한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과 '모든 학문의 신학으로의 환원'에서 빛의 형이상학을 전개한다. 보나벤투라는 신약성경의 빛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참된 빛'이라 지칭한다. 이것은 그의 신학에서 '그리스도 중심주의(Christo centrism)를 형성한다.

7) 창세기 1장 3~4절

8) 요한계시록 21장 3~5절

그리스도교 윤리학 관점에서 볼 때, 빛과 어둠의 비유는 선과 악으로 나타나며 어둠에서 인간 삶을 빛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였으며, 신비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최고의 빛으로 나타난다.

보나벤투라는 빛을 구분하였다. 룩스(lux)는 우리가 볼수 없는 빛의 본체로 ‘광원’, ‘참빛’, ‘빛 그 자체’, 그리고 루멘(lumen)은 볼수 있는 ‘광선’으로 ‘햇살’ 그리고 스피렌돌(splendor)은 ‘광휘’, ‘밝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보나벤투라는 룩스와 루멘의 관계를 확실히 구별하였는데, 룩스는 광원으로서 볼수 없는 신(Deus), 그리고 루멘은 가시적인 빛, 즉 조명된 빛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나벤투라의 ‘요한 주석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Non erat ille lux, sed ut testimonium perhiberet de lumine”(그(세례자 요한)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그리스도)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보나벤투라는 분명하게 ‘오로지 하나님(Deus)만이 Lux(발원체)’라고 하였다(원유동, 2008, Ibid., 74)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신을 부르는 많은 호칭 가운데 신인 그리스도를 빛으로 부른다. 특히 이러한 예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타난다.⁹⁾ 보나벤투라는 삼위일체의 내적인 상호 관계와 관련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빛(lux), 밝음(splendor), 그리고 열(calore)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은 빛과 밝음과 열의 본질과 실체를 이루고 있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다(원유동, 2008, Ibid., 78)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빛은 신이며 어두움은 윤리 철학적 면에서 선의 결핍으로서의 죄로 자주 나타난다. 죄의 어두움이 영혼을 침범하였을 때 관조의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 아무것도 볼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신앙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해 주는 탓이다. 그러므로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이성적 피조물은 죄 때문에 단지 어두워진 눈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신학적 의미로 말한다.

보나벤투라의 주장에 따르면, 죄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오고, 인간이 의지를 통해서 빛의 근원에서 멀어질 때 이것이 죄라고 보았다. 이는 선의 결핍으로 악이라고 볼수 있다. 어두움으로서의 죄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화되어야 한다. 즉 인간이 빛이신 신에게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죄는 먼저 도덕적 정화를 거친 후 이성적 조명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영적 고양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원유동, 2008, Ibid., 79)

이상과 같은 보나벤투라의 이론은 영성 사진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보나벤투라의 이러한 주장은 빛 그림과 영성 신학의 관계 정립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될수 있다. 즉, 우리 인간은 죄의 어두움이 영혼을 침범했을 때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관조할수 있는 시력을 잃어 제대로 볼수 없지만, 신앙으로 도덕적 정화가 되고 영적 고양에 이루어지면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영적인 눈으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관조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9)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2장 46절

IV. 영성 사진에 대한 신학적 근거

4.1 영성 사진 형식으로서 문화 신학

종교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명제가 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종교는 문화에 의미를 제공하는 본질이고, 문화는 종교가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종교와 문화는 서로가 의존하며 성과 속으로 분리될수 없는 공통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에 따르면, “모든 종교적 행위는 제도화된 종교뿐 아니라 영혼의 가장 친밀한 움직임에서도 문화적으로 형식화된다.” 틸리히에게 있어 신학은 문화적 문제들과 영원한 진리 사이의 대화이며 종합이고, 이 종합은 인간 존재의 영적 생활을 확대시킨다고 생각한다(Paul J. Tillich, 김은혜, 2005, 159)

틸리히에게 문화신학의 목적은 모든 거대한 문화 현상 속에 내재하는 구체적 종교적 경험을 위한 표현 방식을 발견하여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들이 신적인 중요성과 종교적 본질로 가득한 문화적 상황, 즉 신율적(神律的) 문화를 증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김은혜, 2005, Ibid., 169). 틸리히는 『문화의 신학의 이념에 관하여』에서 “형식이 증가하는 그만큼 더 자율적이 되고, 내실이 증가하는 그만큼 더 신율적이 된다”고 보았다(Paul J. Tillich, 김산춘, 2010, 233에서 재인용).

틸리히의 문화신학 체계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은 모든 유한성과 공통된 경험 영역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 자체(Being itself)와 동일하다는 점이다(Tillich, Paul, 1967, 김은혜, 2005, op.cit., 164에서 재인용). 틸리히의 문화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문화적 삶의 모든 현상의 심연이므로 이러한 동일성에는 종교와 문화의 상호 관련성이 수반된다. 결과적으로 종교는 문화의 형식 내에서 그 형식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하며 이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종교적 차원이 문화를 특징 짓는다(김은혜, Ibid., 164)

틸리히는 이미 1919년 자신의 최초의 문화신학 논문에서 “내용”(substance)과 “형식”(form)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예술의 “표현주의적”(Expressionist) 모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중에 “교회와 문화”(1924)에서 틸리히는 자신의 표현주의적 문화신학 모델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최초로 제시하게 되며, 그 명제는 약간의 변형을 수반하며 틸리히의 글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문화의 주된 내용은 종교이며, 종교의 필연적인 형식은 문화이다”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종교와 문화’의 상호 내재성은 개념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내용과 형식’의 상호 내재성으로 설명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959년 자신의 기념비적인 저작 『문화신학』에서 틸리히는 궁극적 관심의 표현이라는 광의적 의미의 종교뿐 아니라 제도적인 협의의 종교도 모두 문화적으로 형성된 표현물이라고 주장하며, 문화와 종교의 통속적인 이원론을 보다 유기적인

관점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손호현, 2012, 293)

틸리히는 인간의 조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성(expressiveness)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이며 종교적 이해에 가장 가깝다고 보았다. 틸리히는 미(beauty)라는 용어 대신에 표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라는 용어는 지금 미학에서 퇴락하여 경멸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재를 불성실한 방법으로 미화한 자연주의 형식 탓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술과 건축에서의 성실과 축성』(1965)에서도, “나는 앞으로 최소한 30년 동안 ‘표현성’이라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그 신성함이 더럽혀진 말을 대체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였다(Paul J. Tillich, 1965, 김산춘, op.cit., 242에서 재인용)

개신교 신학에서 예술신학은 틸리히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미래의 신학이 문화 신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틸리히는 예술을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그의 신학에서 예술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는 강연에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언급하고 또 보여주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설명했고, 예술이 교회와 신앙, 그리고 신학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은 그 시대의 힘든 현실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틸리히는 예술도 그 내적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에게 예술과 종교는 모두 시대의 한계를 넘어 궁극적인 차원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말씀 중심의 개신교 신학에서 예술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틸리히의 신학은 이런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공헌했다.¹⁰⁾

틸리히는 사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과연 사진을 예술로 인정하고 신학적인 사유의 대상이라 여겼을까? 틸리히는 사진을 주제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강연 중에 몇 차례 언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틸리히의 사진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 논의는 그다지 깊지 않기에 사진 신학 이론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그의 관점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가 미국에서 예술과 신학을 강의하던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사진에 대한 주된 논쟁은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진에 관한 틸리히의 언급도 주로 사진의 예술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입장은 회의적이었다. 그럼에도 틸리히의 입장을 파악해보는 건 무의미해 보이지 않는다.

예술을 신학의 대상으로 높이 평가한 틸리히였지만,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리는 데는 인색했다. 사진에 대한 그의 평가를 살펴보자. 1952년의 한 강연에서 그는 사진이 객관적인 기록을 넘어서야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사진이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당시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틸리히는 사진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10) 시각 예술에 대해 개신교는 가톨릭에 비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가톨릭은 종교 미술과 종교 음악, 건축 등을 강조하여 중세에 이어 16세기에 이어 17세에도 예술이 기독교 사상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널리 인정하였다. 하지만 개신교는 미술과 음악을 세속 세계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루터는 종교개혁 사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종교 예술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견지했지만, 츠빙글리와 칼뱅은 종교 예술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여겼다(Alister E. McGrath, 박규태(역), 2016, 414).

말했다. 사진가의 눈과 영혼이 카메라와 하나가 되어 미적인 차원의 깊이를 발견하는 경우였다.

1959년 그의 『조직신학』 2권에서는 사진이 현실의 표면적인 차원을 재현하는 모방의 도구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표면의 한계를 깨고 깊은 차원의 현실을 드러내는 게 예술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면 사진은 참된 예술이 될 수 없었다.

탈리히는 1965년 사망하기 몇 달 전 “현대 미술의 종교적인 차원”이란 제목의 강연을 한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팝아트(pop art)와 추상표현주의 작가 윌렘 드 쿠닝(Wilhelm de Kooning)의 작품을 거론하면서 앞서가는 예술의 경향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신학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 강연에서 탈리히는 사진이 예술인지 묻고 그에 대한 답까지 제시했다. 아주 단순한 답이었다.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열린 질문’으로 남기겠다는 모호하고도 회의적으로 들리는 답이었다. 마치 탈리히의 모호함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듯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가 이에 대해 다시 물었다.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다. 만약 탈리히가 사진에 대해 분명한 자신의 생각이 없었다면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탈리히는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 모호해진 현대의 상황에서 사진의 예술성을 얘기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과 다름이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미술가가 그린 초상화와 사진가가 찍은 초상화에 대한 비교였다. 그는 여기서 미술가는 예술가로, 사진가는 그냥 사진가로 불렸다. 예술가가 그린 초상화는 그에게 어떤 한 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작품이었다. 초상화를 그리는 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진으로 만든 초상화는 주인공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어야만 가능했다. 카메라를 움직여 각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 초상화는 어느 한 순간의 장소와 각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예술가는 주인공의 삶 속으로 들어가 순간을 넘는 깊이와 가능성을 담을 수 있지만, 사진가는 주인공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그 순간의 상황밖에는 담아낼 수 없다고 했다. 탈리히에게 예술의 위대함은 표면 밑에 감춰진 본질과 가능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던 20세기 초반 예술의 역할을 산업사회의 기계화된 문명 속에서 소외되고 왜곡된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해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탈리히는 사진으로는 그런 예술의 본질을 이룰 수 없다고 파악한 것이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담아내야 하는 사진의 한계 때문에 내면과 깊이를 담는 예술의 차원에 이르기 힘들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서보명, 2021, 143~153).

4.2 영성 사진 내용으로서의 자연 신학

자연 신학(Natural theology)이란 인간의 이성이나 일반적으로 자연속에서 얻어진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신학의 한 분야이다. 자연 신학은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강조한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자연 계시의 능력을 강조하며, 자연신학을 만들었다. 우주론적 논증 즉 인간 이성의 힘과 의지를 강조하여 경험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성으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알 수 없지만, 만물의 제 1 원인이며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고 보았다. 여기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자로서 하나님의 개념을 사용한다. 결국 인간은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자연신학을 주장하였다.

자연 계시는 인간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통하여 전달된 계시인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자연이나 우주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구체화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된다. 그렇지만, 자연 계시는 우리의 죄와 피조물의 한계로 인해 무한자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

시편 19:1-4은 일반계시와 관련하여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창조의 질서와 복잡함과 경이로움은 능력이 많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존재를 알려준다.¹¹⁾

일반계시는 다윗의 삶에서 충만하게 나타난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다윗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금세기의 가장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 1997)은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표현했다.

다윗이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었다는 것은 증거는 그가 풍부한 은유를 썼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등 보이는 모든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 다윗은 은유를 통해 하나님을 명명했다.¹²⁾ 창조 세계 전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 그것에 의해,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 만일 우리가 충분히 넓고 깊게 이해한다면

11) 구상 시인도 ‘말씀의 실상(實相)’ 시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이 피조세계의 신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無名)의 백태가 벗겨지면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창밖 울타리 한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12)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2) ; 사무엘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명명했다. “나의 하나님이지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란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삼하 22:3)

면 -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심지어 바위까지도 다윗에게는 그러했다. 바위는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자주 쓴 은유들 중 하나다. 그가 여러 가지 창의적 변화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쩌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은유였을지 모른다. 사실 바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창조 세계 전체에서 바위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또 있는가? 그러나 다윗은 그 극도의 비유사성 속에서 오히려 유사성을 인식해 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주목했고, 더 많이 주목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주목했다. 다윗은 신학자, 곧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 하나님을 명명하는 자였다. 그것도 최고의 신학자 - 계시와 경험을 직접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명명하는 자였다(Eugene H. Perterson, 이종태(역), 1999, 240)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주목하고 명명했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자신의 기도로 삼았다. 다윗은 은유로 기도했고 경험을 기도로 삼았으며 계시를 기도로 삼았다. 241 시편 18편은 생동감이 넘치는 다윗의 기도문이다. 이 시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 시편만큼 다윗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기도문도 없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 하나였던 이레니우스(Irenaeus)는 “충만하게 살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Eugene H. Perterson, 이종태(역), 1999, Ibid., 238~239)

자연 신학의 주로 인용되는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1장 20절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9편처럼,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지어진 피조물로부터 “이해되며”,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가르친다(Emil Brunner, & Karl Barth, 김동건(역), 2021)

이러한 일반계시에 대해 자연 신학으로의 정립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에밀 브루너와 칼바르트¹³⁾의 자연 신학에 대한 논쟁으로 체계화된다. 일반 계시와 관련하여, 에밀 브루너의 ‘자연과 은혜’와 칼 바르트의 응답 ‘아니오!’는 1934년 발표된 후 곧 신학계의 이목을 모았다. 계시와 자연신학에 대한 이들의 논쟁이 조직 신학을 통해 정립되었고, 이들의 논쟁은 이제 고전이 되었다. 연구 문제1과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시편에서 엿볼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나타난 일반 계시나,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일반 계시의 성경적 근거들은 자연 신학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영성 사건의 성경적 근거가 될수 있다.

신학계의 두 거장은 자연 신학을 두고 사활을 건 논쟁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의 주장들은 영성 사건 내용의 신학적 근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서 은혜를 누릴수 있는기라는 본 연구의 세 번째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밀 브루너는 ‘그렇다’이고, 칼 바르트는 ‘아니다’로 극한 입장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통

13) 브루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자연신학’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기독교 일반계시’ 혹은 ‘자연계시의 교리’라는 말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고백한다(Emil Brunner, & Karl Barth, 김동건(역), 2021, 17)

개신교 신학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두 학자였지만, 이 둘의 신랄한 신학 논쟁은 1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시기였고, 신학이 위기에 빠진 시기여서 사생결단으로 전개되었기에 당시 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우리가 조용히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도 종교 박해의 역사를 거쳐 온 그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에밀 브루너는 이중계시(double revelation)를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피조물 안에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에 있는 계시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자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서 앞의 계시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후자의 계시는 전자보다 훨씬 밝은 것이다(Emil Brunner, & Karl Barth, 김동건(역), 2021, Ibid., 43)

성경에 나타난 계시와 자연에 나타난 계시의 관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다. 자연계시는 성경의 도움으로 명확해지며 완성된다. 성경은 자연계시를 들여다보는 “렌즈”이다. 다시 말해서 돋보기이다. 성경의 계시는 자연계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확대해서 보통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계시의 음성을 잠자다가도 들릴 만큼 확장시킨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가 자연의 계시를 불필요한 잉여물로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성경을 통해서만 자연의 계시가 효과가 있으며 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에 다다를 수 있다(Emil Brunner, & Karl Barth, 김동건(역), 2021, Ibid., 58)

그렇지만 이상과 같은 에밀 브루너의 자연계시를 통한 은혜의 주장에 대해 칼 바르트는 오직 은혜(sola gratia)라는 교리와 성경만을 유일하고 궁극적인 진리의 기준으로 보면서, 성경의 계시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칼 바르트는 자연이나 양심이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반계시’를 주장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척한다. 그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하고 완전한 계시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Emil Brunner, & Karl Barth, 김동건(역), 2021, Ibid., 36)

V. 영성 사진의 실천 사례

5.1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의 영성 사진

사진으로 내면의 돌봄과 영성의 실천이 가능하다면, 그 예를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에게서 찾을 수 있다. 머튼이 사진을 통해 찾은 것은 그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추구하던 것과 다를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최근 사진과 영성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한 곳엔 머튼의 사진이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사진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20세기 역사에서 영성을 설명할 때 토마스 머튼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마음의 눈으로 본 세상을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이다. 머튼이 사진으로 보여준 세상은 자신의 눈으로 본 세상이다. 창조된 세상을 은혜의 세상으로 보고자 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물기를 바랐던 머튼의 마음의 눈(엠펙 1:18)으로 본 세상이다. 여기서 그의 사진은 영성과 관조의 이미지가 된다. 그렇다면 그의 사진은 해석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깊은 바라봄 혹은 묵상의 대상이 된다. 그의 사진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순간들이 모여 지향하는 영원함을 침묵 속에서 드러내려 한 것이다.

머튼의 사진은 세상을 분석해서 찍은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그가 발견한 것들의 신성함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또 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진에선 화려한 빛이나 각도로 대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세상에 특별하고 신성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그에게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신기한 도구였다. 그래서 머튼은 카메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칼뱅(J. Calvin)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창조된 세상을 직시하고 그곳에 거울처럼 비친 하나님을 관조(contemplate)하라고 권했다. 머튼은 이를 카메라의 거울로 실천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관조의 의미가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한 훈련이고, 침묵이나 명상이 이를 위한 방법이라면 그 도구를 사진에서도 찾는 것을 무리라 할 수 없다. 카메라는 결국 세상을 사진 한 장으로 보게 만든다. 멈춘 시간 속에서 침묵하는 사진의 세상은 명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진이 머튼의 눈을 통해 전해진 것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리핀(John Howard Griffin)이 1970년 머튼 사진집에서 머튼에게 카메라가 관조의 도구였다고 쓴 이후 머튼의 사진을 다루는 많은 글에서 그의 사진을 관조적인 사진으로 논하고 있다. 머튼이 세상에 감춰진 신성함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만든 사진이라는 뜻일 것이다.

머튼은 예술적인 취향은 하나님의 선물로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장된 경건함과 위선적인 영성을 내세우는 예술을 경계했다. 예술의 유행을 따르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신성함을 추구하는 예술이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머튼이 사진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계속 발전시킨 결과로 보아야 한다. 카메라는 그에게 일상 속에 감춰진 신성함을 찾게 만든 도구였다.

머튼은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진을 남겼다. 그의 사진에서 영성과 예술에 대한 머튼의 이해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추구한 예술과 영성 그 자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서보명, 2021, 150~153)

5.2 Visual Worship Institute 사례

국내외에서 사진과 신학의 융합을 시도하는 사진가 단체로 Visual Worship Institute가 있다. 홍콩, 유럽, 한국, 몽골 등에 지부를 두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영성 사진을 추구하는 사진가 단체이다. VWI 설립자이자 대표인 함철훈 사진선교사는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 사진작가이자, 저술가이다.

VWI는 1994년부터 수차례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VAI Photographer School에서는 ‘토브와 바라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교육한다. 주된 교육 내용을 보면, 토브와 바라크로서의 카메라 옵스큐라, 하나님 최고의 토브와 바라크 –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토브 –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서의 카메라 옵스큐라, 그 아름다움을 보는 심상의 렌즈 – 영혼, 4차 산업 혁명 속에 만들어야 할 아름다움 – 그 토브의 카메라 옵스큐라, 아름다움을 만드는 예술의 역사와 하나님의 토브 등을 주요 주제로 강의하였다.¹⁴⁾ 이후, 함선교사의 강의 내용들은 이성철(2022)에 의해 ‘사진가의 노트’(빛그린)로 간행되었다.

VWI의 함철훈 사진선교사는 그동안 사진을 통한 선교 시역 활동들을 정리하여 박사 학위논문으로 발표하였다(Chol Hoon Ham, 2023)

함철훈작가는 그의 사진 세계를 신학적, 미학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VWI 사진미학의 핵심적 개념인 케노시스(kenosis; 자기 비움)의 성경적 어원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진이 빛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예술이기에 케노시스와 연결된 빛의 형이상학자 보나벤투라의(Sanctus Bonaventura) 창조 이전의 빛(Lux)과 창조된 빛(lumen)을 고찰하였다. 두 가지 빛 중 피조물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를 살폈다. 그는 서양과 다른 동양인들의 오랜 철학인 무아(無我)의 케노시스와 비교하였다. 이어 성경에 나타난 케노시스로 예수의 변화산 사건과 율기를 설명한다. 그리고 VWI에서는 어떻게 사진미학의 케노시스와 예술이 접목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함선교사는 VWI 사진미학인 케노시스를 예술 미학적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는 예술 선교를 교육하는 VWI가 추구하는 사진 미학의 핵심에는 선교학적 개념인 케노시스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과업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학기계인 사진기로 하나님의 케노시스를 담게 된 근거를 화가 윌리엄 터너(J.M.W. Turner)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인상파화가들에 이어 추상화의 아버지인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그리고 한국적 케노시스인 달 향아리를 풀어낸 최순우를 소개한다. 그리고 화가들이 추앙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오히려 인상파 화가들을 부러워해 인상파 음악을 창시하고 완성시킨 드뷔시를 논하였다. 케노시스의 음악에는 우리나라의 황병기에 주목하였다. 함선교사가 황병기와 만나 음악과 사진의 케노시스에 대해 공감한

14) VWI International를 대표하는 함철훈작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축복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시각에서 사진 교육을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진 관련 단행본을 출판한바 있다. 교재로는 ‘토브와 바라크의 아름다움’(2019)이 있다. 예기치 못한 기쁨에 바람처럼 설레어, 올리브 북스, 함철훈(2014)은 몽골에서 사진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간증의 글과 사진이 담겨 있다.

얘기에 이어 논자가 경험한 ‘사진 없는 사진전’을 예로 든다.

함선교사는 VWI를 통한 예술 선교와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 문화 예술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과 VWI의 시각 차이를 비교하였다. 계몽주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이성과 논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시작을 살피고 있다. 그런 계몽주의의 한계를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와 한스 로크 마커(Hans R. Rookmarker)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계몽주의시대 말기에 대응하는 VWI 지체들을 소개하였다. 함선교사의 사진 교육은 주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기독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전문 사진작가로 훈련시켜 사진선교사로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계몽주의 활동과 선교사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 선교의 방안과 예술 협동조합을 통한 VWI의 미래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5.3 미국 Luthren 교회 사례 : Northern Illinois Synod Photography Club

루터교 그룹이 신앙 형성과 예배를 위한 그룹 영적 성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적 실천으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루터교는 몇 가지 영성 사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루터교 카메라 클럽; 대학원 수업과 영적 실천으로서의 사진에 대한 소그룹 신앙 형성 과정 개발;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위한 미디어 아트의 공동 창작.

2012년 5월에 시작된 북부 일리노이 사진 클럽은 신앙과 사진을 연결하도록 돕는 데 열정을 가진 제프리 쉐슬링저(Jeffrey Schlesinger) 목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우리 루터교 인들은 은총의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소명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을 그의 소명으로 여겼다. 사진 찍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약 12명의 사람들이 격월로 루터교 야외 사역 센터에 모여 사진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그룹은 사진을 사랑하고 상호 나눔, 학습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사진을 신앙 여정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모이는 침례 받은 사람들의 그룹으로 발전하였다. 사진 동아리가 모일 때마다 회원들은 기도로 시작해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진을 나눈다. 시각 예술의 기술적, 미적 측면에서 서로를 멘토링한다.

회원 중 한명인 태미 수 앤더슨(Tammy Sue Anderson) 목사는 "영적인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설교에 가끔 사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성금요일 예배에서 그녀는 예배자들의 목상을 위해 십자가 사진 시리즈를 화면에 보여주었다. 사진이 비춰지는 동안 기타를 치거나 찬양을 하였다. 십자가 사진들은 묘지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교차로가 만든 십자가, 하늘의 제트기 흔적이 남긴 십자가, 심지어 사람들의 몸에 문신을 새긴 십자가 등이었다.

또 다른 회원인 앤드루 크조스(Andrew Kjos)는 자신의 교회에서 가족 초상화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는 62가구를 촬영했다. 내성적인 Kjos는 이 행사가 지역 사회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교회에

19년 동안 참여해 왔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이 자원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개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자신을 확장하고 관계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 결과, 그는 자신의 교회 가족과 더 친밀하게 되었고, 교회 가족들 역시 그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이 사진 클럽은 한 회원인 젠킨스(Jenkins)가 설명하듯이, "창작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경험 많은 참가자가 초보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비공식적인 멘토링"의 특징을 지닌 참여 문화의 한 예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믿고 서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연결을 느낀다. 사진 모임을 통해 교제의 영성의 중요성을 엿볼수 있는 사례이다.

5.4 시카고 소재 가톨릭 신학대학(Catholic Theological Union) 사례

: 미디어 문화에서의 예배, 예배, 영성 및 디지털 미디어 예술 과정

2004년부터 시카고 소재 가톨릭 신학대학(Catholic Theological Union)에서 시작한 "미디어 문화에서의 예배"와 "예배, 영성 및 디지털 미디어 예술"이라는 과정이다. 또한 "영성 실천으로서의 사진"이라는 대학원 과정도 개설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인들이 자신의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예배에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친다. "미디어 문화에서의 예배"에 대한 대학원 과정의 일환으로 현재 "예배, 영성 및 디지털 미디어 아트"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명확한 종교적인 피사체를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주제 선택에 이러한 제한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신성한 상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이미지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일상 생활의 이미지, 추상적인 이미지, 클로즈업 사진 및 기타 종류의 이미지가 시청자에게 영적 성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빨리 깨닫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수강생들에게 사진을 찍어오게 하여 함께 보면서, 신학적으로 감상하도록 요청한다. ; "이 이미지는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은혜를 어디에서 느낄수 있는가? 어떤 성구가 떠오르는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은가? 어떤 절기에 잘 어울릴 것인가? 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러한 사진에 대한 기본 훈련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수강생들이 카메라를 들고 관조하면서 걷고 사진을 찍도록 한후,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 사진을 촬영했는지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매일 자신의 이웃과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 공원과 뒷 골목에서 신앙과 조화를 이룰 것을 기대한다. 이 과정의 목표는 수강생들이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미디어 아트를 예배에 통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이 과정이 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개발되길 요구받고 있다.

2013년에 수강생들에게 사진의 행위와 예술에 참여하는 영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새 요소가 추가되었다. 영성, 빛의 신학에 대한 간단한 에세이를 쓰기 위해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매일의 신비주의(everyday mysticism)"에 대한 짧은 에세이들은 모두 사진의 영성에 대한 것들이다. 매주 수강생들은 사진 과제를 하기 전에 할당된 온라인 에세이 중 하나를 읽도록 했다.

교육의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먼저 기도로 시작하며, 수강생들의 사진을 화면에 비추거나 작은 비디오 모니터로 보여준 후 침묵의 묵상 시간을 가진 후, 다른 수강생들의 감상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가 '영성의 실천(spiritual practise)'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발견 한 것에 대해 발표한다. 모두가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고 다른 참석자가 그 사진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감상할 기회를 가진 후, 담당 교수의 사진 중 하나를 보며 '눈을 뜨고 기도'한 후 각 모임을 마친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한 수강생의 소감을 소개한다.¹⁵⁾

“영적 수련으로서의 사진... 에일린 D. 크로우리(Eileen Crowley)¹⁶⁾가 처음 우리에게 제안했을 때 나는 제목과 개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진을 찍고, 제 자신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꽤 괜찮은 사진을 생각해냅니다. 하지만 영적 수련?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더 영적으로”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우리 반은 둥글게 모여 서로의 사진을 보고 의견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사진 과제는 형태, 선, 질감, 패턴 또는 색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창의적이고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 과제 외에도 에일린은 우리가 이러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때 눈에 띄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도록 초대합니다. 그녀는 “이 사진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사진작가로서 어떻게 감사, 은혜 또는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특별히 찾았습니다. 은혜를 한 번 느껴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라는 우리의 소명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촬영할 것입니다.

15) “Photography as a Spiritual Practice” <https://photogsp.weebly.com/> 2023년 5월 30일 접속

16) Eileen D. Crowley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Catholic Theological Union의 예배, 예술 및 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였다. 그녀는 예배, 예술 및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영역에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풍요롭게 할 영적인 실천으로 함께 예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전념하였다. 본 연구의 미국 사례에서 소개된 Catholic Theological Union의 예배, 예술 및 커뮤니케이션학과 과정들은 Crowley교수가 직접 운영한 것이다. 그녀는 두권의 책을 간행하였다. 첫 번째, Liturgical Art for a Media Culture(2007)은 예배 미디어, 역사적, 문화적 맥락, 그리고 그 가능성과 위험. 미디어 제작자이자 예배학자로서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Eileen Crowley는 예배에 어떤 미디어를 통합할지, 어떻게, 통합할지를 분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그러한 미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모델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A Moving Word : Media Art in Worship(2006)에서는 예배에 미디어 아트를 통합하는 방법의 예들을 통해 Crowley는 독자의 상상력을 확장하여 새로운 종류의 예술 - 예배 미디어 아트를 구상하고 이를 제작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인 공동 창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눈을 뜨고 과거에 쉽게 무시하거나 무시했을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가 가능하다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거룩함을 인식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나는 그림 속의 그림을 볼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받을 수 있으며 매일의 장면에서 은혜를 엿볼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기반의 미니 코스는 참여 문화와 신앙 형성이 어떻게 대면 소그룹이 매일의 신성한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예이다. 이러한 미니 코스에서 만든 사진은 보는 사람의 목상과 영감을 위해 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신성한 비전(visio divina) 이미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성경 공부 그룹, 종교 교육 또는 기타 설정에서 성찰을 유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소그룹 교육 과정에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이다. 광각 및 어안 이미지뿐만 아니라 매크로(클로즈업)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스마트폰 어댑터를 활용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영성 훈련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명한 사진작가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이 설명했듯이 "카메라는 사람들에게 카메라 없이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도구이다.“

그 외, 해외에서 신학과 사진을 결합을 시도하는 단체가 있다. 영국 리즈교회연구소(Leeds Church Institute) 토마스 제이 오르드(Thomas Jay Oord)는 자신을 신학자이자 사진가로 소개하면서, 자연이나 도시를 탐험하면서 자신의 '신학과 사진의 결합'하는 행위를 창조적 공동 창조라고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골 지역이나 보호 구역의 야생 장소를 촬영하는 데 보내면서, 창의적인 공동 창작을 어디서든 하는데, 광야와 도시 경관에 대해 신학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어떻게 협력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그렇지만 이 단체에서 사진 신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물도 발견되지 않는다.¹⁷⁾

V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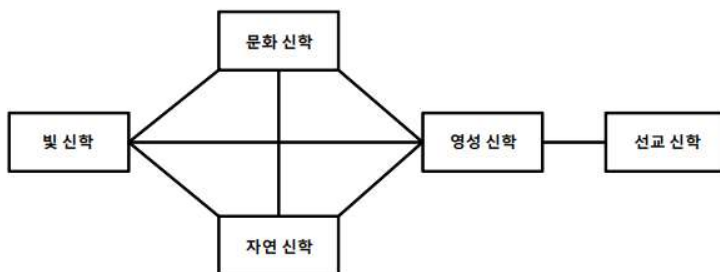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사진학과 신학의 융합을 모색하기 위해 영성 사진에 초점을 맞추어 사진의 신학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사진의 신학적 근거를 헬라어 어원인 빛 그림에서 찾고, 빛의 신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빛 신학자인 보나벤투라의 빛 신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17) <https://cileeds.org/creative-co-creating-combining-theology-and-photography/> 2023년 5월 30일 접속

영성 사진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여 각각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영성 사진 형식은 문화 신학에서, 영성 사진의 내용은 자연 신학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영성 사진의 실천에 대해서는 영성 사진을 교육하고 있는 미국 교회와 미국 신학교의 사진 교육 현장 사례, 그리고 국내외 영성 사진 교육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1>은 영성 사진 신학의 학적 체계도이다. 사진 신학은 빛의 신학에서 출발한다. 영성 사진은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문화 신학과 자연 신학이 각각 신학적 근거가 된다. 그 외 영성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영성 신학이 있다. 영성 신학은 영성 자체를 다루는 신학이기에 영성 사진의 핵심이 된다. 여기까지가 영성 사진 촬영 이전 단계의 신학들이다. 영성 사진 촬영 이후는 실천 신학의 영역이 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실천 영역은 선교나 목회의 영역이 될 것이다. 영성 사진을 통해 선교나 목회의 자료로 활용하는 영역이다. 영성 사진을 통해 치료하는 사진 치료도 생각해 볼수 있다. 따라서 영성 사진을 통한 다양한 실천 신학 역시 향후 영성 사진의 신학적 토대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향후 영성 사진과 영성 신학, 그리고 영성 사진과 선교 신학, 목회 신학, 사진 치료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신학 영역들은 본 연구의 범위의 벗어나며,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그림1> 영성 사진의 신학적 토대 체계



영성 사진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성 사진이 과연 ‘하나님의 신비로 통하는 문’이 될수 있을까?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교회에서는 말과 글의 문화가 지배적이다. 이미지 위에 말이 없는 사진 예술이 어떻게 교인들의 영성 훈련에 활용되고, 평범한 예배 공간에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환경 예술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은유적 이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문학적 기호나 은유로 가득 찬 성경책을 말과 글로 영상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젊은 디지털 세대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노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예배에 사용할 이미지를 위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톡(stock) 사진에 의지해왔다. 현대 교회는 오늘날의 미디어 아트를 예술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말을 보조 설명하는 수단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영성 사진의 실천 사례들을 통해 교회가 사진, 비디오 및 모든 종류의 뉴미디어 예술과 같은 창의적인 예술이 지역 사회의 신앙 형성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예배에 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특히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공동 창작 과정에서 개발된 예술은 교인들의 참여를 통한 교제의 영성을 계발하는데 매우 유익함을 알수 있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보다 온라인에서 자주 교류하는 오늘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이러한 예술의 공동 창작은 참여 문화를 창출할 것이며, 나아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삶에서 은혜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성 사진 제작 및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사진 공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기록하거나, 삶의 소명을 새롭게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비디오 및 기타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신앙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고, 예배를 위한 미디어 예술의 원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성경이 선포한다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 43:19). COVID19로 인해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메타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 2의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광야와 같은 공간에 정보고속도로라는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공간에 한류라는 강을 내실 것이다. 사진은 정보고속도로와 한류의 길을 통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시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자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교회는 사진을 통해 생명을 살릴뿐만 아니라, 나아가 은혜를 더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나가는 영성 매체가 될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및 논문

- 김산춘, “폴 틸리히, 예술의 신학,” 미학·예술학 연구, 32집, 2010, 227~249.
- 김은혜, “폴 틸리히 문화신학의 문화이해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선교와 신학 16집, 2005, 156~252.
- 류경선, 사진아카데미, 미진사, 2007
- 박경숙, “빛과 인식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 아우구스티누스, 보나벤투라, 토마스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61집, 2003, 85~104.
- 박종석, “사진과 기독교신앙교육: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제174호, 2016, 223~259
- 백승균, 사진 철학을 만나다, 북길드, 2014
- 서보명, “사진의 역사와 신학의 만남,” 기독교사상, 2020년 10월호, 164~173.
- _____, “사진의 영성 토마스 머튼,” 기독교사상, 2021년 1월호, 147~158.
- _____, “사진과 믿음,” 기독교사상, 2020년 11월호, 179~189.
- _____, “사진은 예술이어야 하나? 신학자 폴 틸리히와 사진”, 기독교사상, 2021년 2월호, 143~153
- 손호현, “폴 틸리히의 문화신학과 표현주의 모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집, 2012, 287~312.
- 오우성, 박민수, 성경적 영성 형성,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2
- 원유동, 보나벤투라의 빛의 형이상학, 한국학술정보, 2008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2009, 97
- 이상식, “사진을 통한 행복한 선교,” 2022. 8. 20, 행복한 부자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
- 이성철, 사진가의 노트, 빛그린, 2022
- 최병학, 사진-신학, 인간사랑, 2022
- 함철훈,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 교보문고, 2014
- _____, 토브와 바라크의 아름다움, 2019, 미간행 자료
- _____, 예기치 못한 기쁨에 바람처럼 설레어, 올리브 북스, 2014
- Brunner, Emil & Karl Barth, Natural Theology, 김동건(역), 자연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21
- Chol Hoon Ham, “A study on kenosis, the photographic aesthetics of VWI, and art mission through VWI.” OIKOS University, USA, Doctor of Ministry Thesis. 2023
- Crowley, Eileen D., A Moving Word: Media Art in Worship, Augsburg Fortress, 2006

Crowley, Eileen D., *Liturgical Art for a Media Culture*, 2007, *American Essays in Liturgy*
Daval, Jean-Luc, *Photography : History of an Art*, 박주석(역), *사진예술의 역사*, 미진사, 1999

Karr, Andy, Michael Wood, *The practice of contemplative photography : Seeing the World with Fresh Eyes*, Boston : Shambhala, 2011

McGrath, Alister E., *Christian History*, 박규태(역), *기독교의 역사*, 포이에마, 2016

Perterson, Eugene H., *Leap Over A Wall : Earth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 이종태(역), *다윗 :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IVP, 1999

Tillich, Paul, *Theology of Culture*, ed. Robert C. Kimbal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I*,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Zehr, Howard, *The Little book of Contemplative Photography*, PA: Good Books, 2005

신문기사 및 인터넷

조선일보 한국 스마트폰 보유율 '95%'... 세계 1위, 2019. 6. 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6/2019020600746.html

Korea IT Times(2021. 9. 3),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53억명 돌파...세계 인구의 67%,
<https://www.koreaittimes.com>

“Photography as a Spiritual Practice” <https://photogsp.weebly.com/> 2023년 5월 30일 접속

<https://lcileeds.org/creative-co-creating-combining-theology-and-photography/>
2023년 5월 30일 접속

사진학과 신학의 융합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영성 사진을 중심으로

이상식(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사진의 신학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진학과 신학의 지평을 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사진학과 신학의 융합 지점을 영성 사진에서 찾고자 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논의의 전개를 위해 영성 사진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여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사진의 신학적 근거와 영성 사진의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성 사진의 실천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의 신학적 근거를 헬라어 어원인 빛 그림에서 찾고, 빛의 신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빛 신학자인 보나벤투라의 빛 신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성 사진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여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영성 사진 형식은 폴 킬리히의 문화 신학에서, 영성 사진의 내용은 에밀 브루너의 자연 신학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영성 사진의 실천에 대해서는 영성 사진을 교육하고 있는 미국 교회와 미국 신학교의 사진 교육 현장 사례, 그리고 국내외 영성 사진 교육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영성 사진 신학의 학문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사진 신학은 빛의 신학에서 출발한다. 영성 사진은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문화 신학과 자연 신학이 각각 신학적 근거가 될수 있다. 그 외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영성 신학은 영성 자체를 다루는 신학이기에 영성 사진의 핵심이 된다. 향후 영성 신학과 함께, 영성 사진을 통한 선교 신학, 목회 신학과 같은 실천 신학도 영성 사진의 신학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속 연구로 제안하였다.